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4. 28

주간 달러/원 동향(4/21~4/25)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관세 전쟁 여파에 따른 달러 가치 하락 심화 속에 위안화의 강세 폭 확대 등으로 1,410원대 중반까지 하락 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나, 견고한 결제수요 유입 등으로 하단 제한된 국면. 이어 배당 역송금 수요 유입 등으로 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정책 비판 등 연준 독립성 훼손 언급 등이 탈달러 심리 자극함에 따른 달러 약세 반영되며 강보합 시현
- 중반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관세 정책 당국자들의 대중 관세 압박 수위 조절 언급과 연준 의장에 대한 공세 약화 등으로 달러 강세 전환 영향 반영되었지만, 고점 인식 네고 물량 등으로 보합권 흐름. 후반 들어, 중국에 강한 관세 압박에서 미국이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에 달러 가치 상승하며 환율 상방 압력을 높인 형국 이어 주 후반,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물밑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위안화 약세 및 상대적 달러 강세 등을 반영하며 상승 추세 마감

달러/원 전망

- 전주 후반의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관세 철회 소식 등 협상 진전 소식 등으로 그간 달러 약세 흐름의 되돌림 양상이 예상
- 반면,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지는 환율 상승세 속에 월말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 확대 등이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금주에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 분위기를 주도할 가운데 미국 전월 고용지표 발표 등을 앞두고 제한적 범위 속에 소폭 상승 압력 높일 것으로 전망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	------	------	------	------

1,420.0	1,439.4	1,414.9	1,436.5	+13.2
---------	---------	---------	---------	-------

예상거래범위

1,430원 ~ 1,445원

유로·엔화 동향 (4/21~4/25)



유로화 동향

- 주초, 유로화는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가 오는 23일 휴전 협정안을 논의할 예정 발표에 종전 기대감이 높아진 측면과 트럼프의 연준 의장 해임 검토 소식 등에 의한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우려에 달러 가치가 98 초반까지 밀리면서 유로화 급등 출발. 이어 ECB 총재의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비둘기파적 발언 영향으로 유로 환율 급락 시현
- 중반 들어, 미국의 대중 관세 절반 이상 인하 검토 소식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 나타났음에도 달러 가치는 강세로 전환하면서 유로화 약세
- 후반 들어,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두고 엇갈린 설명을 내놔으나, 미국측의 유화적 입장에 위험 선호 분위기 속 유로 대비 달러 약세 흐름 나타나며 유로화 강세 시현 후, 주 후반, 중국이 일부 미국산 상품 고율 관세 철회 보도 및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소식이 전해지며 달러 가치가 하루 만에 반등 함에 따라 하락 전환하며 마감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중가 주간등락

1.1391 1.1439 1.1307 1.1362 -0.0028



엔화 동향

- 주초,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일간 회담 조율 과정이 전해진 가운데 엔저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엔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하며 엔화 강세 출발.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독립성 훼손 언급 등에 달러 가치 하락 양상 지속으로 엔화 강세 지지된 국면
- 중반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 의사 후퇴 언급과 미-중간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 등이 달러 매도 포지션을 되돌림에 따른 달러 강세 전환에 엔화 환율은 소폭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에 위험 선호 현상이 강화되었지만 다시 한번 트럼프의 연준 의장 금리인하 압박에 달러 가치 하락하며 엔화는 소폭 강세 전환. 이어 주 후반, 간밤에 진행된 미-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엔화에 대해 어떠한 압박도 하지 않았다는 소식에 엔화는 약세 압력 받으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중가 주간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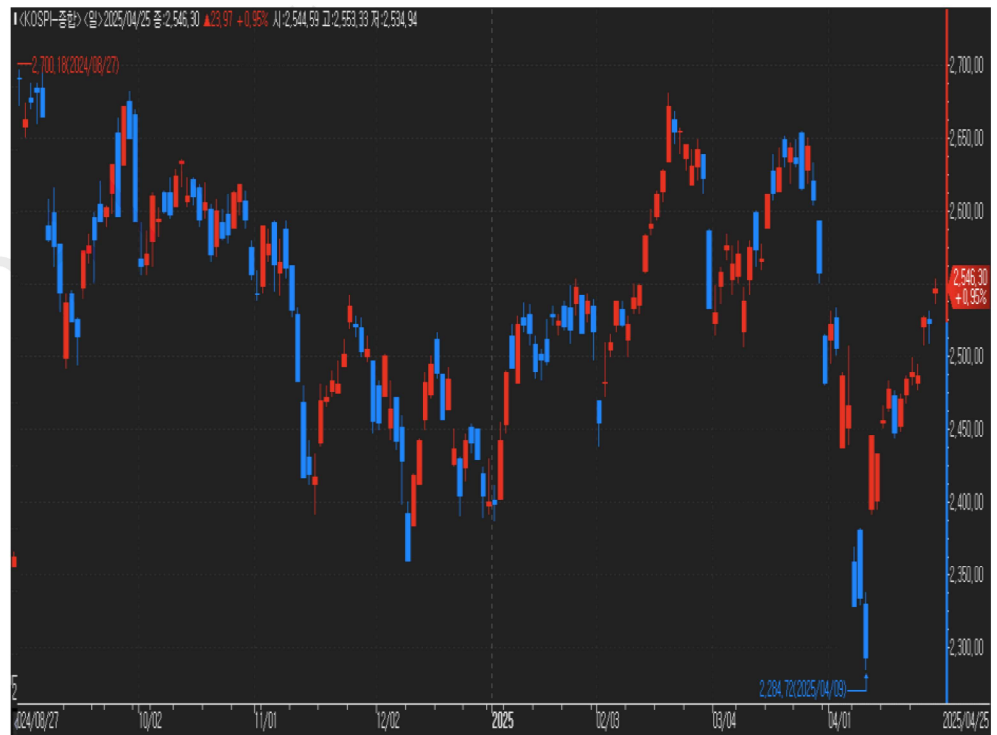
142.2 144.0 139.9 143.6 +1.5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4/21~4/25)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대내외 특이 이슈 부재한 가운데 수급상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에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 이어 미 10년 국채 금리 급등 영향에 더해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도 등, 국고채 수급 부담 등이 작용하며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재무장관 등이 대중국 관세가 협상 통해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냄에 따른 그간의 '셀USA' 흐름이 되돌림 되면서 미국채 금리 상승 영향을 반영, 장기 구간 중심으로 하락
- 후반 들어, 1분기 국내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금리 하락 양상을 보였으나, 추경 이슈가 부각된 점이 영향을 미치며 상승 전환. 이어 주 후반, 간밤 미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시그널이 이어진 가운데 국내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의 역성장 시현함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하락 재전환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4월 월간 국내 수출이 트럼프 관세 영향을 반영 감소세를 나타낸 점이 투자심리 약화를 견인했지만, 반도체 부문 선방에 강보합 출발. 이어 미국과 관세 협상 및 본격 기업 실적 시즌을 앞둔 기대감 상존에도 미국 정책 불확실성 등 여러 복합적 요인에 따라 혼조 속에 약보합 전환
- 중반 들어, 미 행정부 당국자들의 시장 우호적 발언 등, 금융부문에서의 불안이 확대되기 전 수습에 나서는 국면 속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큰 폭 강세 전환
- 후반 들어, 연준 베이지북에 언급된 관세 압박의 소비자 전가 등에 불확실성 등이 경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속에 국내 1분기 역성장 결과 등이 투자심리 약화를 견인. 다만,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한 기대 등이 하단 제한. 이어 주 후반, 긍정적 한-미 관세 협상 소식 및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 진행중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관세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커진 측면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 미치면서 상승 마감